



## 머리글

미리암 수녀 / 자비의 메르세다리아스 수녀회

### “우리는 감사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 마르쿠스 툴리우스 키케로(Marcus Tullius Cicero) -

#### 감사! 그리고 활기 있는 태도

얼마 남지 않은 2020년,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19! 지금 우리는 전 세계가 어떻게 이 상황을 다양하게 대처하고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안에서도 불평하고 불쾌해하며 원망하는 태도와 아주 창조적이고 밝고 건강한 태도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무색이고 예쁘지 않은 마스크가 이제는 액세서리로 변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집 밖으로 외출할 일이 있으면 옷, 가방, 귀걸이, 시계 그리고 차림새에 잘 어울리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니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것 외에도 우리는 이제 회의, 미사, 기도, 교육 등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삶의 모습에서, 이제는 의식을 전환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가치, 믿음, 영성 그리고 종교라는 자원이 있습니다. 그 자원 중에서 저는 감사의 생각, 감사의 마음, 감사의 행위로 살고자 하는 가치의 한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해 보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부터는 새로운 자세, 새로운 태도로 명확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태도란 무엇일까요? 이것은 특정 행동으로 이어지는 절차입니다. 의도 또는 목적의 실현인 것입니다. 심리학에 따르면 태도는 다른 상황에서 발생하는 습관적인 행동입니다. 그리고 태도는 각 개인의 정신생활을 결정합니다.

#### - 마음작업 -

자, 그럼 시작해 봅시다.

우리의 의도, 습관적인 행동, 생활 모습을 결정하게 되는 생각들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까요?

- ☐ 하루에 몇 번이나 “고마워”,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나요?
- ☐ 오늘, 무엇 때문에 “고마워”,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했었나요?
- ☐ 그 말을 사용할 때 진심으로 했었나요? 아니면 그냥 하는 일상적인 인사였었나요?

예수님의 성탄을 준비하면서 함께 숙제 하나 하기로 해요.

▶ ‘하루의 한번, 말과 생각 그리고 마음을 같이하여 진심으로 감사하기’ :

자신에게 → 타인에게 → 주님에게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느님의 뜻입니다.” (1테살. 5장 16-18)

## 사형수를 위한 위령미사



11월 2일(월) 광탄 나자렛묘원에서 사형수를 위한 위령미사가 봉헌되었습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항상 함께해 주시는 봉사자와 후원분들을 대신하여 신부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방문하였습니다. 김도훈 라 파엘 부위원장 신부는 “자신의 것을 털어내는 자연을 보면서 우리도 언젠가는 저렇게 비우고 갈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지금 소유하고 있는 여러 집착과 고민, 고통에서 조금 자유로워졌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함께하지 못한 후원회원들의 마음을 가득 담아 기도 후 사형수의 묘 하나하나 세심하게 매만지며, 돌아보았습니다.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이들에게 하느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 기쁨과희망은행 창업지원 수여식



11월 4일(수) 창업자금 약정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수시 접수로 전환된 2020년 출소자의 자립을 위한 창업자금 융자지원 사업에 신청자로 2020년 10월 21일 실시한 대면심사에서 창업자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창업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어려운 시기 창업을 준비하는 대상자를 위해 많은 응원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 기쁨과희망은행 운영위원회의



11월 17일(화) 교정사목센터에서 기쁨과희망은행 제95차 운영위원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신부님을 비롯한 운영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쁨과희망은행의 코로나19로 인한 변화에 맞춰, 앞으로의 방향성에 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항상 사회 교정사목위원회 기쁨과희망은행을 위해 봉사해주시는 운영 위원께 감사드립니다.





## 나의 발걸음을 이끄시는 주님

김선호 아가다\_ 서울구치소 남사 대표 봉사자

2020년 1월, ‘또다시 새로운 한 해가 시작하는구나!’ 했는데 어느새 또, 한 해가 저물어 가고 다음 새해를 기다리는 대림 시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특수 사목 중 하나인 교정사목에 첫발을 딛기 시작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10년이 훨씬 전인 2006년에 친구인 최마르타 자매의 권유로 매주 수요일 서울구치소 봉사를 시작하였습니다.

함께하는 형제님들과 자매님들이 반갑게 대해 주셨고, 넓은 강당에 파란색 수의를 입은 형제들을 보니, 이상하게도 무서운 죄인들이라는 생각은 잠시, ‘이 사람들이 나에게 주는 주님일 수도 있겠구나, 사람은 죄를 지으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으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듯이 아마도 이 형제들도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만들어진 환경의 영향으로 이곳까지 오게 되었지만, 자연스럽게 주님 앞으로 인도하리라’하는 생각으로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담장 안에 있으면서 자유롭지 못한 생활과 담장 밖에 있는 생활은 다르지만, 모두가 하느님의 자녀라는 것은 분명하고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형제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내 손길이 필요하기에 성경 반 간식을 준비하여 매주 수요일 오전에 형제들을 만나러 구치소로 향했습니다.

처음에는 생소하여 서먹서먹했던 분위기가 한주, 한주 지나면서 편안해졌고, 그러면서 저는 그 형제들의 눈빛에서 자신을 되돌아보고 그곳 생활을 후회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으며, 저는 그 형제들의 눈빛에서 주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세례와 견진을 통해서도 새로이 태어나지만, 비록 죄를 지어 그곳에 들어와 있는 형제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을 돌이켜 보고 앞으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그 또한 영적으로 새로이 태어나는 것이 아닐까요?

소외된 사람, 버림받은 사람을 찾아가는 우리가 되어 준다면, 그것은 곧 나에게 해준 것일 겁니다. 나를 스쳐 가는 사람들 모두에게 조금만, 아주 조금만 친절을 베푼다면 그것은 곧 나에게 베푼 것이고, 그들 안에서 나의 얼굴을 보게 되는 게 아닐까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본의 아니게 그들을 만날 수는 없지만, 이 어려움이 빨리 지나가길 바라면서 우리 봉사자들을 기다리는 그들을 위하여 우리 봉사자들은 뒤에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 파라오의 두 시종장

현대일 루도비코 신부\_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위원장

파라오의 두 시종장을 비교하는 것은 사실 애매하고 쉽지만은 않습니다. 창세기 40장에는 이집트 왕에게 술잔을 올리는 신하와 빵을 만들어 올리는 신하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사람이 모두 파라오에게 잘못을 저질러 파라오가 진노하였으며, 요셉과 함께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같이 들어와 함께 수형생활을 하다 한 사람은 복직이 되고, 다른 사람은 죽게 됩니다. 무엇이 이 두 사람의 운명을 갈랐을까요.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본문에는 그 대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릴 적 보았던 이야기 성경이나, 그럼 성서에는 술잔을 올리는 신하는 누명을 써서 들어왔는데 그 누명이 벗겨진 것이고, 빵을 만들어 올리는 신하는 그 잘못이 드러난 것으로 표현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성경은 두 사람의 잘못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왜 다른 결말을 맞이했는지도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제빵 시종장도 억울한 죽음일지 모릅니다. 하느님 품속에서 위로를 받고 있을지 모릅니다. 성경은 그저 요셉이 이 두 사람의 꿈 풀이를 해주었고, 꿈 풀이가 용하게 맞아떨어졌음에 주목합니다. 하지만 두 시종장 이야기 속 차이가 꿈이 다른 것뿐이고, 꿈이 의식과 무의식의 상호작용이라는 심리학자들의 학설을 바탕으로, 두 시종장의 꿈을 다른 방향으로 살펴보는 것은 어떨까요. 요셉은 두 시종장의 꿈을 예지몽으로 풀이했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반성해보는 계기로 삼아봅시다.

현작 시종장의 꿈에는 술잔을 올리는 신하답게 포도나무가 나옵니다. 가지에 싹이 돋고 꽃이 피고, 포도송이들이 익습니다. 그의 관심은 파라오입니다. 포도를 보고 파라오를 떠올립니다. 어떻게 포도를 이용해서 돈을 벌어볼까를 생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포도송이를 따서 파라오의 술잔에 짜서 파라오에게 올립니다. 그가 할수 있는 방법으로 파라오를 기쁘게 합니다. 그리고는 실제로 그는 파라오에게 다시 가까이 갈 수 있게 됩니다. 복직해서 파라오 곁에서 술잔을 올리게 됩니다.

제빵 시종장 꿈에도 빵이 나옵니다. 이미 구워졌습니다. 파라오에게 가져다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어디서 새들이 날아와 그 빵을 쪼아 먹습니다. 세상에나! 왕에게 올릴 빵인데, 새가 쪼아 먹게 놔두다니요. 그가 그 빵에 좀 더 주의를 기울였으면 멀리서 새가 오는 것을 보고 빵을 가렸을 텐데, 팔을 휘휘 저어서 새를 쫓아 버렸을 텐데, 그의 관심은 도대체 어디에 있었을까요.

우리의 파라오는 주님이십니다. 좋은 창조물을 보고 우리 주 하느님을 떠올리며 우리가 가진 재능으로 그분을 기쁘게 하고 찬미할 수 있다면 그분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지 않을까요. 때론 어려운 환난을 겪을지라도 말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이미 그분께 드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우리 관심을 다른 데 돌린다면 새들이 와서 쪼아 먹어버릴 것이고, 그분 곁에 다가가지 못 할지도 모릅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오늘은 온 누리의 임금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왕 대축일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왕이시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막상 당신은 우리 중에 가장 약한 이에게 해 준 것이 당신에게 해 준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마태 25,31-46). 굶주린 이, 목마른 이, 집 없는 이, 헐벗은 이, 병든 이, 감옥에 갇힌 이가 당신이라고 하십니다. 어떤 것을 보아도 우리 중 약한 이들을 떠올리며 기억하고 그들을 도울 생각을 하나요. 어떻게 하면 그들을 도울 생각을 하고 있나요. 우리의 관심이 그들에게 머물고 있나요.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빵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새가 날아와 쪼아 먹고 있어도 내 관심은 그냥 어떻게 하면 내 배만 불릴 수 있을까에 머물고 있지는 않은지요. 사회적 약자가 더욱 위기에 몰리는 이 세계적 전염병 대유행인 요즘 그렇게 종교인들의 기도와 손길, 위로가 더 필요한 이 시기에 사회는 종교 예식 좀 자제하라고 요청합니다. 그동안 종교 예식이 사회적 약자에게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헌금 많이 모으기, 자기 세력 부풀리기에 있었기에 이런 결과를 맞이한 것은 아닐까 반성해봅니다.

당신은 이 글을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대림시기에 읽겠군요. 가장 작은 이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정말로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지요.





## 동행

OO 대표 / 창업준비센터 입주자

### Q1. 창업준비센터에 입주하게 되면 어떠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계셨나요?

⇒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무공간만 지원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공간뿐만 아니라 사무실에 필요한 소소한 것까지 지원해주셔서 정말 고마운 마음뿐입니다. 매일 맛있는 점心和 불편함이 있을세라 먼저 세심히 물어봐 주시고 항상 밝은 미소로 반겨주시는 직원분들, 그래서 더 고마운 마음이 큼니다.

### Q2. 사업 아이디어는 어떻게 구상하게 되셨나요?

⇒ 7년간 MICE관련 회사에 근무하면서 해마다 성장하는 MICE산업에 비하여 처음 입사했을 때나 몇 년이 지나도 똑같이 행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 비효율적인 업무처리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행사 관리 플랫폼 개발 방안을 고민하고 현 운영 시스템을 개선할 방안을 2년간 준비해오다가 2019년에 퇴사를 하고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MICE는 기업회의 'Meeting', 포상관광 'Incentive Travel', 컨벤션 'convention', 전시 'Exhibition'의 네 분야를 통틀어 말하는 서비스산업으로써, 유럽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전시컨벤션 선진국들에 중요한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 Q3. 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실 수 있는가요?

⇒ 행사통합관리 플랫폼으로, 행사 주최, 주관, 대행사를 중심으로 행사 기획부터 수행, 행사 결과보고, 행사데이터 통계관리까지 통합 관리가 가능하며, 행사데이터를 이용한 부가가치 창출, 상담 업무 프로세스 표준화로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즉, 행사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통합 운영 시스템으로 수출입 관련 무역 상담 행사에 필요한 기능을 포함하여 행사의 모든 관계자가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여 체계적이고 정확하며 신속한 서비

스를 이용할 수 있는 원스톱 행사 운영 전문 플랫폼입니다.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 서비스 제공으로 사용자는 안정적으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으며, 시간과 공간의 업무처리 환경의 한계 극복하여 참여 구성원 간에 실시간 업무 공유로 업무 효율성 증대 및 행사 운영에 필요한 원활한 의사소통 체계를 지원합니다. 또한, PC, 태블릿, 모바일기기 등 인터넷이 가능한 모든 기기를 이용한 실시간 업무처리를 가능하게 실현함으로써 수출상담회를 체계적이고 신속하며 효율적 행사 운영에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 Q4. 사업을 하면서 힘들었던 순간이 있으신가요?

⇒ 다른 사업들도 그러하겠지만 자금 조달이 제일 어렵습니다. IT업종 특성상 기술개발인력 확보(개발자들의 높은 인건비)와 플랫폼 구축을 위한 기계설비 구매 및 기술 보호를 위한 무형자산 취득, 각종 용역비 등으로 자금이 사용되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한 자금운영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제일 힘이 듭니다.

### Q5. 올해의 목표, 최종 목표가 어떻게 되나요?

⇒ 2019년에 선정된 R&D기술지원 과제를 잘 마무리하는 것이 올해의 목표이고, 최종 목표로는 국내 표준화 행사 관리플랫폼 No.1 기업으로 성장하고, 해외에 수출과 함께 대한민국 최초 새터민 IT 상장 기업을 만드는 게 저의 꿈 이자 최종 목표입니다.

### Q6. 운영에 있어서 철학을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 철학까지는 아니더라도 직원과 회사가 함께 성장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부 외주로 계약한 업체에서 계약서를 가져왔는데 갑과 을이라고 표시하여 가져왔기에 동과 행으로 수정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갑과 을은 수직 관계이지만 동과 행은 평행관계이고 서로 떨어져서는 동행의 뜻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더불어 사는 건강한 기업, 함께 나누며 성장하는 기업을 만들겠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누군지 모르는 이에게 온 편지가 낯설지는 않으셨는지요?  
 어제였던 11월 11일 오후, 평소와 다를 것 없던 하루였습니다. 30분 남짓의 운동시간을 보낸 후  
 올라왔을 때 제가 생활하는 거실의 창살에 편지와 낯선 종이기가 있었습니다.  
 편지보다 낯선 종이에 관심이 갔고, 저의 이름이 적혀있는 종이였습니다.  
 분명히 제게 맞게 전달 된 듯한 이 종이는 과연 무엇일까. 찬찬히 살펴보던 중에  
 '천주교 서울대교구'라는 명칭과 함께 '사회사목국 사회교정사목위원회'라는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원목 신부님들이 계시듯 교정에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었는지요.  
 너무 감사하고, 감사한 마음에 이곳에서 처음 받은 소식지를 소중하게 한자, 한자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감격에 찬 마음과 함께 다시금 주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뜻하지 못한 선물을 받은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크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누나가 종교활동을 묻는 편지와 소식지가 함께 왔을까요?  
 어쩌면 주님께서 저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또 하나의 방법으로 제게 알려주신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중독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을 때 갑자기 저에게 세례를 주셨던 신부님이 보고 싶어졌습니다. 왜 갑자기 그분  
 이 생각이 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조소스럽게도 신앙의 힘을 통해 위로받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찾은 신부님  
 은 '카프성모병원'이라는 천주교 중독치료병원에 원장신부님으로 계셨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너무 떨리고 얼떨떨한 마음으로 신부님께 연락을 드려 찾아뵙고, 카프성모병원에서  
 중독치료를 병행하며 생활했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인도하여 주셨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매주 미사를 드리러 성당을 꼭 찾아가는 그런 독실한 신자는 아니었습니다. 냉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저에게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것만 같아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혼자만의 자격지심에 사로잡혀 잘못된 행동을 했지만, 앞으로는 잘못된 행동으로 인하여 소중한 것들을 잃는  
 일이 없도록 매사에 감사하며 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로 복귀하게 되면, 제게 주님의 사랑과 감사함을 일깨워주신 신부님과 교정사목 신부님, 수녀님들께  
 감사 인사를 꼭 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12 안드레아 드림

서울남부구치소에 생활하는 형제님이 현대일 루도비코 위원장 신부님께 보내는 편지입니다.  
 하느님의 사랑과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 후원 계좌번호

예금주 (사)천주교사회교정사목위원회

농협 386-01-013881

우리 1005-700-335190

국민 375301-04-003539

신한 100-019-558299

하나 209-910017-31705

## 2021년 1월 후원회원을 위한 월례미사

빛소식

사회교정사목위원회에서는 매월 첫째 주 월요일 후원회원과 회원 가족들을 위한 미사를 봉헌합니다. 후원회원, 봉사자 외에도 사회로부터 소외된 수용자의 가족과 출소자, 그리고 범죄로 피해를 입은 해밀 가족분과 함께 기도하고 싶은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

\* 일시: 1월 4일 월요일 오전 10:30 \* 장소: 가톨릭회관 3층 강당

\* 1월 축일을 맞으신 분들에게 작은 선물을 드리오니 축일자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 1월 월례미사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서울주보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사제들은 매일 후원회원과 봉사자들을 위하여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문자 주시면 미사 중에 기억하겠습니다.

교정사목 휴대폰 번호: 010-3732-5093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카카오톡채널이 개설되었습니다. 모바일에서도 손쉽게 공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QR 코드를 찍으면 채널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 사회교정사목위원회 50주년 기념 영상

1970년 4월 2일 '교도소 후원회'를 설립한 천주교 사회교정사목위원회가 2020년 50주년을 맞아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50년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영상입니다. 많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오른쪽 QR 코드를 찍으면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50주년 기념품을 드리며

우리 위원회가 50년을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후원회원님들 덕입니다. 조그만 선물이라도 모든 회원님께 드리고 싶었습니다. 작지만 쓸모있는 것, 그리고 의미 있는 선물을 고민하고 고민했습니다.

교정 사목의 교정(矯正)과 치아 교정(矯正)은 한자어가 같습니다. 하긴 이가 빠져버렸다고 다 뽑아버리지는 않지요. 오랜 시간 안고 품어야 교정이 되는 것처럼 우리 사회의 교정도 그러하겠지요. 품고, 안고, 그리고 열심히 닦아주시는 여러분들이 사회의 칫솔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의 기념품이 환경오염이 되지 않기를 고민했는데, 플라스틱이 아닌 대나무로 만든 칫솔이 있더군요.

'이런 것도 있구나' 하며 깨닫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작은 선물이지만, 감사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후원에 늘 감사드립니다.

### 2020년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

1.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https://www.hometax.go.kr>)에서 확인 및 출력(1/15일 이후)
2. 기부금 영수증은 본 위원회에 주민등록번호가 등록되어 있는 후원회원에 한하여 발급 가능하오니 연말정산 기간의 혼동을 줄이기 위하여 미리 개인정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부금영수증을 우편 신청하신 분에 한하여 1월초 발송)

\* 귀한 사랑을 나누어주시는 후원회원님께 감사드립니다. ▶ 후원사업부: 02)921-5094

※ 법인설립허가증, 고유번호증은 사회교정사목위원회 홈페이지 <게시판-공지사항>에서 출력 가능

### 새로운 교정사목의 가족을 소개합니다. (10/13~11/15)

2020년 10월~11월에는 강귀자 헬레나, 강옥희 아가다, 권은희 마리나 수녀, 김금재 아나스타시아, 김선희 헬레나, 김유창 토마스아퀴나스, 박노훈 베로니카, 박민경 소피아, 박상태, 박상희 베드로, 박진선 세실리아, 배춘옥 모니카, 변미자 스텔라, 양준명 정하상 바오로, 유경애 막달레나, 이경희 마르타, 이순옥 모니카, 이연수 임마누엘라, 이옥분 젤뚜르다, 이정환, 이정훈 비오, 장원복 마리안나, 조정희 골롬바, 최문숙 세실리아, 한풍자 미카엘라님께서 새로운 후원회원이 되어주셨습니다. 더불어 권명화, 기옥성, 노말순, 서상희, 양인수, 오성택, 원양숙 막달레나, 유영주 소하테레사, 윤영녀 율리아, 이은선, 최재훈님께서 기부금을 보내주셨습니다. 후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